아시아의 섬유 산업 -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받게 돼

동북 아시아나 동남 아시아의 섬유 산업이 생산이나 판매 활동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선진국의 제조ㆍ판매 업자는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싼 나라로 생산을 위탁하거나 현지 생산하면서 이에 따른 장ㆍ단점을 고려한 전략과 전술을 짜서 그대로 추진하면 충분하였다. 말하자면 기업 중심의 전략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여러 나라들의 정치 외교력이나 경제 교역 활동이 많으나 적으나 서로 얽히고 있어 단순치 않은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변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원유를 비롯한 지구 자원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생산 기지로서의 공장화 규모가 커질수록 대량의 각종 자원이 중국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 동안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런 사태가 현실로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 산업용 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는 일본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여러 나라로부터 중국으로의 물류가 급증하여 각 업종들이 호황을 맞게 되었으며, 그 반면에 중국 섬유품의 수출이 확대됨으로써 위협을 받게 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섬유 공업이 계속 축소되었는데, 이들 현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으면서도 원인은 중국의 경제 대국화로 귀착한다.

문제는 앞으로의 동향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크게 성장하면 확실히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증가한다.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석유수출국기구)에서는 석유 채취량의 여력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섬유 자원에 의지하지 않는 산업 형태를 빨리 구축하지 않으면, 석유와 관련된 많은 화학 제품의 가격이 확실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박차를 가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13억으로 추정되는 인구 대국인 인도의 경제 성장이 막 이륙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정치ㆍ외교력을 행사하려는 나라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를 잘하고 못하고가 각 기업의 경제 활동을 크게 좌우하는 것을 피할 길 없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파란만장한 시대가 다가올 것을 각오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많은 영고성쇠(榮枯盛衰)의 흥망을 겪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문명의 쇠망(衰亡)에 관한 서적은 많이 있으나, 중세기에 유럽의 통상 국가인 이태리 북부의 베네치아(Venezia : 지금의 Venice)나 올란다(Olanda : 지금의 Netherland)가 번영하던 이유와 쇠망하게 된 사연을 보면, 지금의 일본이나 우리 나라가 앞으로 유의하여야 할 많은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수백년에 걸쳐 번영하던 베네치아 공화국이 17세기에 이르러, 그 동안 노를 젓기도 하고 돛단 범선으로도 항해하는 소형의 갈레이(galley)선에만 의존하여 지중해나 아드리아해(Adriatic sea : 이태리 동쪽의 바다)를 무대로 한 중계 무역에만 만족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포르투갈이나 올란다의 대형 범선들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과 아시아 간의 광역 무역에 지중해에서만 맴돌고 있던 교역은 지고 말았다.

또 하나, 베네치아는 영국으로부터 원모(原毛)를 수입하여 고급 모직물을

생산하여 유럽이나 터키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스스로 고급 모직물을 제직·염색 가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베네치아는 여전히 영국 양모 제품을 품질이 나쁜 싸구려로 경시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다. 수십년 동안 영국을 계속 무시한 끝에 베네치아 양모 공업은 영국 모직물에 지고 말았다.

특히 베네치아나 올란다는 번영기에 많은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올란다의 일부 업계에서는 영국을 웃도는 양모의 염색 기술이나 각종 섬유 제품의 가공 기술을 확립하여 올란다 경제를 번영케 하였으나, 그 당시에 베네치아나 올란다 등의 통상 국가들은 숙명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혐오 대상이 되었으므로, 자원이 있는 군사 대국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야 하며, 국력이 쇠퇴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어야만 섬유 공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